

제공일자	2015. 10. 7(수)	담당자	윤성훈 연구조정실장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3775-9115)	연락처	3775-9016, 010-5583-9417 총 9매

제목 : 가격자율화를 보험산업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10월 8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조선폰텔 (소공동) 오키드룸에서 제40회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함. 동 조찬 회에서 보험연구원 윤성훈 연구조정실장은 「201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였고,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은 「보험산 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에 대해 설명함.

국내경제 2.8% 성장으로 회복 지연

먼저 발표에 나선 윤성훈 실장은 2016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 소 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및 설비투자가 소폭 개선되어 2015년보다 0.4%p 높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16년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입 물가 하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소비 자 물가상승률은 1.3%(2015년 0.8%)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국채(3년) 금리의 경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하며 연간 평균 2.0%를 기록할 것으로 봄. 원/달러 환율은 경상 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연간 평균 1,180원 으로 추정함.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및 중국 경착륙 가능성 이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보험산업 퇴직연금 제외 시 4.9% 성장에 그칠 전망

보험산업의 경우 2016년 들어 생명보험이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손해보험 역시 퇴직연금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보험료는 2015년 증가율보다 0.7%p 상승한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경우 4.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봄.

구체적으로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이 저축성보험 회복에 의해 소폭 성장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2015년 증가율보다 1.4%p 상승한 8.6%(퇴직연금 제외 시 5.2%) 증가할 것으로 봄. 2015년 실시된 예정이율 인하, 금리리스크 부담 증대, 대내외 금융위기 요인에 의한 금융시장 부진, 그리고 여야합의에 의한 근퇴법 통과여부가 위험요인으로 제시됨.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증가율이 전년대비 둔화되고, 개인연금과 일반손해보험은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6년 원수보험료는 2015년 증가율보다 0.1%p 낮은 6.8%(퇴직연금 제외 시 4.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윤성훈 실장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첫째, 저성장 고착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둘째,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 및 노후소득 관심 확대, 셋째,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 요구 확대와 금융 융·복합화 진행, 넷째, 금융 개혁 시행 및 부채시가평가 도입 예정을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 및 정책과제로 ① 저성장 고착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강화 ② 금융개혁 체계적 대응 ③ 중·소형 보험회사 성장전략 모색 ④ IFRS4 phase II 전략적 대응 그리고 ⑤ 금융 융·복합화 대응 등을 제안함.

첫째, 저성장·저금리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한 경영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저성장·저금리

고착화, 인구구조 변화, 금융 규제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 목표를 기존의 시장 점유율 확대 또는 단기 수익 추구에서 장기이익 등 기업가치 제고로 전환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위험자본 관리, 상품개발 및 자산 운용전략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 하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둘째, 금융개혁의 주된 방향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시장 질서와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상품과 가격과 관련된 규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문함. 특히 시장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자산운용, 판매채널 등에서 강점을 부각시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함. 한편으로 판매자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건전화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셋째, 저성장 고착화 및 금융개혁은 대형 보험회사에 비해 중·소형 보험회사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 보험회사는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가 요구되어지고 M&A를 통해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언급함.

넷째,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자본 감소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IFRS4 Phase II 대응을 지원할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함을 제언함.

다섯째, 인터넷 전문은행, 복합점포, 개인형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보험슈퍼마켓 등 금융업권 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위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핀테크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첨부: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및 2015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각 1부. 끝.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경제 동향과 전망

- (실물경제) 2016년 국내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4%p 높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동향: 2015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4년(3.3%) 증가율보다 0.9%p 하락한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부진 지속 등으로 2014년보다 0.5%p 하락한 0.8% 오를 전망이다.
- 전망: 2016년 국내경제는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 개선과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4%p 높은 2.8% 성장할 전망이다.
- 2016년 민간소비는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노후 대비 부담,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요인으로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정부 및 대기업 주도의 투자활성화 정책, 노후설비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2015년에 비해 0.4%p 상승한 5.9%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은 2.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 증가로 수입도 자본재를 중심으로 2.9% 늘어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입물가 하락세 진정으로 2015년 0.8% 대비 0.5%p 높은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상황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와 여성·노년·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 등으로 고용률은 2015년보다 0.2%p 상승한 60.4%를, 실업률은 0.2%p 하락한 3.7%를 나타낼 전망이다.
- (금융시장) 국채(3년)금리의 경우 2015년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5년 9월까지 평균 1.83%를 기록하였는데, 2016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 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5년보다 소폭 상승한 2.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동향: 2015년 국고채(3년)금리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아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시기 도래, 중국 경제 부진 및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지속하여 2015년 평균 1,14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2016년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5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간 평균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이며, 연간 평균 환율은 2015년보다 상승한 1,180원으로 전망함.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2016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손해보험 역시 퇴직연금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2015년 증가율보다 0.7%p 상승한 7.8% 증가가 전망됨. 그러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경우 4.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 선지급형 신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이 성장하고 퇴직연금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7.2%의 증가가 예상되며, 2016년에는 저축성보험이 소폭 성장하고 퇴직연금제가 대기업을 시작으로 의무화될 경우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8.6% 증가가 전망됨. 그러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경우 5.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호조세로 6.9% 증가가 예상되며, 2016년에는 개인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부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6.8% 증가가 전망됨. 그러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경우 4.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소폭 성장하고 퇴직연금제도도 대기업 위주로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2015년에 비해 1.4%p 상승한 8.6% 증가가 전망됨.

○ 2016년 보장성보험(종신·CI·암·질병·상해 등) 수입보험료는 가격인상과 종신보험 가입률 제고 여파로 수요가 둔화되고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리면서 성장이 축소되어 6.1%(2015년 8.7%) 성장이 전망됨.

- 2015년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연금 선지급형 신종신보험으로 이동하면서 종신보험 신계약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2015년 수입보험료는 8.7%(2014년 5.1%) 성장이 예상됨.

- 2016년 저축성보험(생존·생사혼합·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은 보장성보험 가격인상, 상대적 고금리 유지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생존보험을 중심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회복될 것이나, 저금리 지속과 경제회복 지연, 가계소득증가율 부진 등으로 인한 저축여력이 감소되면서 성장률은 소폭 증가한 4.7%(2015년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대형사 위주의 저축성보험 판매강화 움직임이 중형사로 확산되고 타금융권대비 상대적 고금리 유지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소폭 회복되고 변액저축성보험도 변액유니버설과 변액종신 보험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의 경우 저금리 심화로 인한 금리경쟁력 약화와 판매수수료분급 체계 확산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감소하였으나 지난 3년간 역성장의 기저효과로 4.0%(2014년 -5.0%)의 성장이 예상됨.
 - 2016년 단체보험(일반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제의 단계적 전환이 시작(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안))되고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제가 실시되면서 퇴직연금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31.6%의 고성장이 전망됨.
 - 2015년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70%), 1월 IRP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실시, 금리하락에 따른 기업의 적립금 추가 납입 증가 등으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음.
- (손해보험)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부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여 6.8% 증가가 전망됨.
-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로 2015년 5.7%에 비해 0.3%p 낮아진 5.4%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 전망으로 2015년 하반기 선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예정이율 인하와 같은 신규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세제혜택, 보장성보험 보험료 조정에 따른 반사이익, 지속적인 감소세에 대한 반등효과 등 신규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하나, 낮은 공시이율, 저금리 리스크, 저축여력 개선의 어려움이 있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여력 약화로 0.2%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세액공제 혜택,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초회보험료의 소폭 회복이 예상되나, 계속된 저성장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된 데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등 금융권 간 경쟁심화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저성장을 지속할 것임.
 - 2016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추가 적립에 대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가입 추진 등에 힘입어 28.6%의 고성장이 전망됨.

- o 2016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자동차 대수 증가에 의존한 3.4% 증가가 전망됨.
- o 2016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낮은 경제성장률의 영향으로 2015년(2.7%)과 유사한 수준에 그친 2.8% 증가가 전망됨.

2015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 원, %)

종목		FY2013 ¹⁾		2014		2015(E)		2016(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 보험	보장성	248,094	4.3	346,027	5.1	376,105	8.7	399,216	6.1
	저축성	448,383	-17.2	633,355	-5.0	658,863	4.0	689,985	4.7
	개인소계	696,477	-10.6	979,382	-1.7	1,034,968	5.7	1,089,201	5.2
	단 체	75,891	25.7	126,371	40.9	150,367	19.0	197,876	31.6
	합 계	772,367	-8.0	1,105,753	1.9	1,185,335	7.2	1,287,077	8.6
손해 보험	장기손보	315,478	5.6	444,037	6.1	469,433	5.7	494,621	5.4
	상해·질병	142,314	16.1	213,233	14.3	242,891	13.9	268,499	10.5
	저축성	89,300	-4.3	117,617	-2.4	108,432	-7.8	104,716	-3.4
	재물	28,198	0.1	37,476	0.0	39,870	6.4	41,591	4.3
	기타 ²⁾	55,666	1.1	75,710	1.5	78,240	4.3	79,814	2.8
	연금부문	62,991	6.3	104,809	34.2	120,788	15.2	143,752	19.0
	개인연금	31,829	3.1	41,090	-3.2	40,375	-1.7	40,310	-0.2
	퇴직연금	31,152	9.8	63,718	78.9	80,413	26.2	103,441	28.6
	자동차	97,435	0.4	135,484	5.2	145,037	7.1	150,026	3.4
	일반손보	61,679	1.5	81,424	-0.3	83,609	2.7	85,931	2.8
	화재	2,413	-2.9	3,106	-3.6	3,019	-2.8	2,945	-2.5
	해상	6,016	-10.7	7,343	-2.2	7,502	2.2	7,543	0.5
	보증	11,238	-4.8	15,152	-0.6	15,797	4.3	15,966	1.1
	특종 ³⁾	42,012	5.6	55,823	0.3	57,291	2.6	59,477	3.8
	합 계	537,582	4.2	765,754	8.3	818,867	6.9	874,329	6.8
전 체		1,309,949	-3.8	1,871,507	4.4	2,004,202	7.1	2,161,406	7.8

주: 1) FY2013 보험료는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함.

2)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4)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E)	2016(F)
실질GDP	3.7	2.3	2.9	3.3	2.4	2.8
민간소비	2.9	1.9	1.9	1.8	1.7	1.9
설비투자	4.7	0.1	-0.8	5.8	5.5	5.9
건설투자	-3.4	-3.9	5.5	1.0	2.5	2.2
지식생산물투자	6.9	8.6	4.4	4.6	2.5	4.5
재화수출	17.1	4.4	4.5	2.3	0.7	2.5
재화수입	17.6	1.9	1.3	1.2	1.3	2.9
고용률	59.1	59.4	59.5	60.2	60.2	60.4
실업률	3.4	3.2	3.1	3.5	3.9	3.7
경상수지	186.6	508.4	811.5	892.2	846.6	859.1
상품수지	290.9	494.1	827.8	926.9	936.6	954.1
수출	5,871.0	6,035.1	6,181.6	6,213.0	5,756.0	6,076.9
(증가율)	(26.6)	(2.8)	(2.4)	(0.5)	(-7.4)	(5.6)
수입	5,580.1	5,541.0	5,353.8	5,286.1	4,819.3	5,122.8
(증가율)	(34.2)	(-0.7)	(-3.4)	(-1.3)	(-8.8)	(6.3)
소비자물가	4.0	2.2	1.3	1.3	0.8	1.3
국채(3년) 수익률	3.6	3.1	2.8	2.6	1.8	2.0
우량회사채(3년) 수익률	4.4	3.8	3.2	3.0	2.2	2.4
원/달러 환율	1,108	1,127	1,095	1,053	1,140	1,180